



최근 세수오차 발생원인과 2024년 국세수입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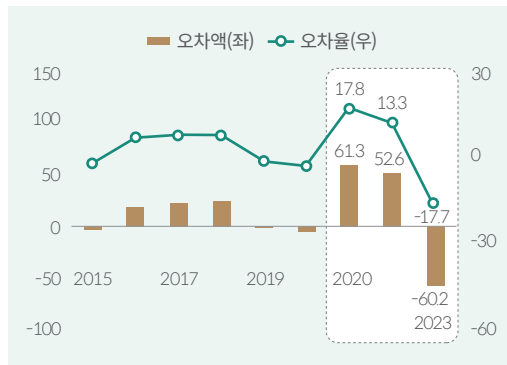
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2과 박정환 분석관

국세수입의 세수오차 현황

- 최근 세입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국세수입 전망오차가 커짐에 따라 재정 운용상 중요한 이슈로 부각
 - 2021년 및 2022년에는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의 호조 및 반도체 관련 기업의 영업실적 개선 등으로 대규모 초과세수가 발생
 - 반면, 2023년에는 그동안 세수 증가를 견인해온 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부진과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기업 영업실적의 급격한 감소세로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
 - 2023년 세수부족 규모 추정치: (정부) 59.1조원 vs. (NABO) 60.2조원

[그림 1] 연도별 세수오차 추이

(단위: 조원, %)



주: 1) 세수오차액은 (본예산-결산), 세수오차율은 오차액/결산x100(%)로 계산

2) 2023년은 국회예산정책처 국세수입 전망치 기준

자료: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[표 1] 2023년 세목별 세수오차 추정치

(단위: 조원)

본예산 대비 세수부족 규모 추정치		
	정부 추정	NABO 추정
총국세	△59.1	△60.2
소득세	△17.7	△17.7
- 양도소득세	△12.2	△12.3
법인세	△25.4	△25.9
부가가치세	△9.3	△8.8
기타	△6.7	△7.7

주: 단수 차이로 인해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, 「2024년 및 중기 국세수입 전망」, 2023.10.

- 이하에서는 2023년 대규모 세수부족의 원인을 진단하고, 이러한 요인의 지속 가능성에 따른 2024년 세입전망을 살펴보고자 함

2023년 세수결손 발생의 원인

- 2023년 세수결손은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발생
 - 2023년 본예산 대비 세수부족 규모에서 법인세(전체 세수부족 규모의 43.1%)와 양도소득세(20.5%)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63.6% 수준
 - 한편, 정부 재추계 결과('23.9.)에서도 전체 세수부족 규모의 63.7%가 법인세와 양도소득세에서 기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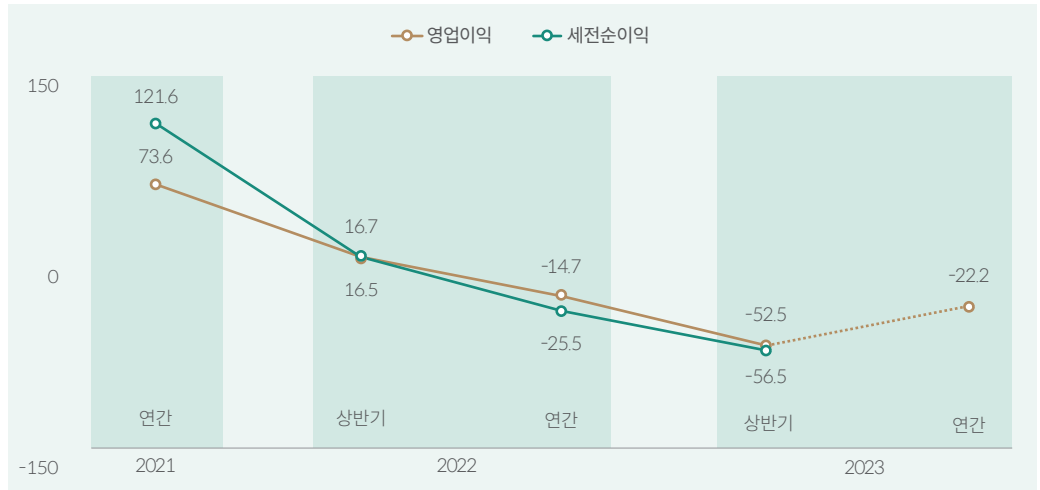


▪ 이와 같은 대규모 세수결손은 예상치 못한 법인의 급격한 실적 악화 및 부동산 시장 침체에 주로 기인

- 법인의 영업실적은 글로벌 경기 둔화와 법인세 증가를 견인하던 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2022년 하반기부터 감소세로 전환

[그림 2] 유가증권 상장법인 영업실적 증감률 추이

(단위: 전년동기 대비, %)



주: 1) 영업실적 증감률은 유가증권 상장법인 중 12월 결산법인의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집계하여 산출

2) 2023년 연간 영업실적 증감률은 증권사 전망 컨센서스('23.11.9.기준)를 바탕으로 계산

자료: (실적) 한국거래소 자료, (전망) FnGuide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양도소득세 등 자산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시장도 금리 인상으로 인한 수요 감소 등으로 2023년 들어 거래량과 매매가격의 부진한 흐름이 지속

[표 2] 부동산 매매가격 및 매매량 변동률 추이

(단위: 전년동기 대비, %)

		2022				2023		
		1분기	2분기	3분기	4분기	1분기	2분기	3분기
가격지수	주택	7.5	4.8	1.2	△4.7	△8.0	△8.8	△7.6
	토지	4.1	4.0	3.7	2.7	1.8	0.9	0.4
거래량	주택	△50.6	△44.5	△49.0	△49.9	△13.8	△11.5	1.4
	토지	△34.1	△31.4	△35.3	△37.8	△26.7	△24.7	△18.0

주: 1) 가격지수는 매분기 말의 전국평균 종합주택매매가격지수('21.6=100) 및 지가지수('22.10.=100) 기준

2) 거래량은 주택 및 토지의 매분기말까지의 누적 매매거래량을 기준

자료: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

2024년 국세수입 전망 및 시사점

▪ 국회예산정책처의 2024년 국세수입 전망은 361.4조원으로 정부 예산안 (367.4조원) 대비 6.0조원(△1.6%) 낮을 것으로 전망

- 국회예산정책처의 2024년 전망은 2023년 전망(340.3조원) 대비 21.1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

- 2024년 우리 경제는 2023년 보다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어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를 중심으로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
- 반면, 2023년 법인 영업실적 부진의 영향으로 법인세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

[표 3] 2024년 국회예산정책처의 국세수입 전망

(단위: 조원, %)

	2023년 NABO 전망 (A)	2024년 정부 예산안 (B)	2024년 NABO 전망 (C)	전년 대비(C-A)		예산안 대비(C-B)	
				증감액	증감률	증감액	증감률
총국세	340.3	367.4	361.4	21.1	6.2	△6.0	△1.6
소득세	114.2	125.8	124.8	10.7	9.3	△1.0	△0.8
- 양도소득세	17.4	22.4	21.1	3.8	21.6	△1.3	△5.7
법인세	79.1	77.7	75.0	△4.1	△5.2	△2.7	△3.5
부가가치세	74.4	81.4	81.1	6.7	9.1	△0.3	△0.4
기타	72.6	82.5	80.5	7.8	10.8	△2.0	△2.4
- 기타 소비세수 ¹⁾	35.5	44.2	43.4	8.0	22.4	△0.7	△1.7
- 기타 자산세수 ²⁾	37.2	38.3	37.0	△0.1	△0.4	△1.3	△3.3

주: 1) 기타 소비세수는 개별소비세, 교통·에너지·환경세, 교육세, 관세, 주세를 포함

2) 기타 자산세수는 상속세 및 증여세, 증권거래세, 인지세, 과년도수입, 종합부동산세, 농어촌특별세를 포함

1. 단수 차이로 인해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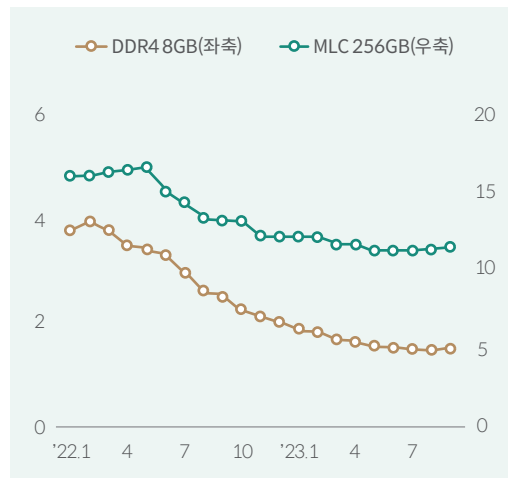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, 「2024년 및 중기 국세수입 전망」, 2023.10.

- 정부 예산안(367.4조원)보다는 6.0조원(△1.6%) 낮을 것으로 전망하였는데, 이는 법인의 영업실적과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에 대한 전망의 차이에 기인

- 2023년 하반기 법인의 영업실적 감소세 둔화에도 반도체 가격 하락 지속, 수입 원자재 수급 불안 등으로 상반기 실적부진을 만회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여 국회예산정책처는 법인세를 정부 예산안 대비 2.7조원(△3.5%) 낮게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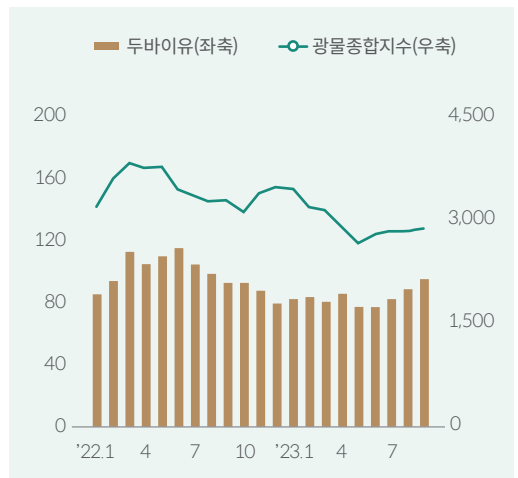
[그림 3] 반도체 가격 추이

(단위: 달러)



[그림 4] 원유 및 광물가격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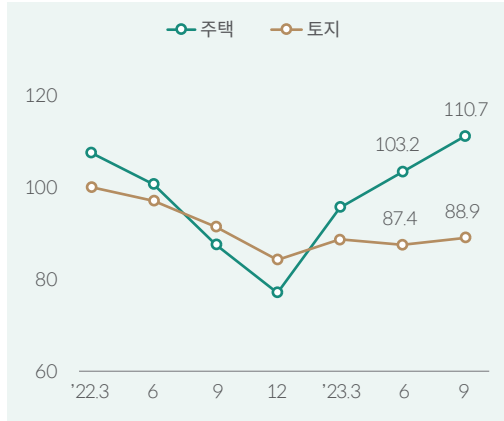
(단위: 달러/bbl, 2016=1000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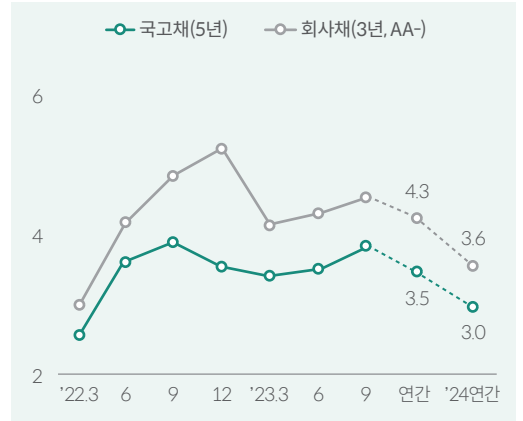
자료: (반도체) DataGuide, (원유 및 광물가격) 한국자원정보서비스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부동산 시장은 높은 금리에 따른 대출수요 제약으로 향후 부동산 거래량 및 가격이 충분히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,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 예산안 대비 양도소득세를 1.3조원(△5.7%) 낮게 전망

[그림 5] 부동산 소비심리지수 추이



[그림 6] 금리 실적 및 전망 추이



주: 1) 부동산 소비심리지수는 100 이상이면 시장경기가 나아질 것으로 보는 응답자가 많음을 의미
2) 금리 전망은 국회예산정책처 경제전망('23.10.) 기준
자료: 통계청, 「부동산 시장 소비자 심리조사」,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(ECOS) 및 국회예산정책처, 「2024년 및 중기 경제전망」, 2023.10., 한국은행 및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자료

- 또한, 국세수입 전망의 전제인 2023년 및 2024년 경제성장률 등 경제지표의 전망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보다 낮은 수준으로 예상

[표 4] 국회예산정책처와 정부의 주요 경제지표 전망: 2024년 기준

	경상성장률	실질성장률	민간소비 증가율	통관수출 증가율	통관수입 증가율	명목임금 상승률
국회예산정책처(A)	4.2	2.0	2.2	7.2	5.7	3.0
정부(B)	4.9	2.4	2.2	8.8	3.0	3.8
차이(A-B)	△0.7	△0.4	0.0	△1.6	2.7	△0.8

주: GDP 구성요소의 증가율은 실질가격 기준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, 「2024년 및 중기 경제전망」, 2023.10.

■ 만약 2024년 경기 하방요인 발생으로 세입여건이 악화될 경우 세수결손의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정책방안을 모색할 필요

- 제조업 경기 회복 지연, 미-중 무역갈등 장기화,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, 중국의 경제성장세 둔화 등 경기 하방요인 존재
- 정부는 경제상황과 세수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, 세입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관측될 경우 국회의 세입예산 심의·의결전까지 세수전망을 수정·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